

#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연구

김웅수  
한일장신대학교

## A Study o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for Building Child Friendly Cities - Comparative study betwe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Woong-Soo Kim

Dept. of Social Welfare,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요 약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에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 지원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W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중요하게 부각되며,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행복감, 학교급, UN 아동권리협약

**Abstract** Child friendly cities are to be prepared to create a community environment that allows children to live happily when children's rights are created when the environment in which children's rights are guaranteed is crea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happiness and explored what needed to be done to build child friendly cities for children. For this purpose, 1,00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W district with the certific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elementary students were more aware of children's righ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 children's rights affecting happiness appeared as health,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ird, children's rights affecting happiness were found to vary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 Housing, safety and protection, and educational resources were importa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health and social services, and safety and protection were important for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ed that multifaceted intervention and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for various aspects of health, welfare, education, safety, etc. to build child friendly cities.

**Key Words** : Child friendly cities, Children's rights, Happiness, Level of school,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eived 30 December 2016,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Woong-Soo Kim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Email: holyws@hanil.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24년 UN의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을 출발로 1953년 UN의 ‘아동권리선언’과 1989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으로 이어지는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써 현재까지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의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함을 근간으로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관심과 노력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아동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본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 우리사회의 아동학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돌봄기관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1].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5,02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31건이 증가되었고, 전체 아동학대의 85.9%는 가정에서 발생하였지만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5.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사항은 아동권리와 보호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예방과 개입이 적절히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 그러므로 아동권리는 일차적으로 아동과 가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다양한 융복합차원의 접근을 토대로 교육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우리사회의 약속과 실천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최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27개 도시는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4].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라고 정의하였다[4]. 이러한 의미는 아동의 권리와 의견

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도록 하는 작업이며, 의사결정자와의 관계와 참여과정을 거쳐 그들의 이익이 현장에 반영되도록 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5].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도시 내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대상주체가 되는 아동에게 두는 것이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서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동권리를 지역사회의 공공 정책, 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안적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예산반영을 한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의 사업의 핵심은 아동의 주체적 참여와 권리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정책에 참여와 반영을 통해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성과 아동발달측면을 고려한 발달적, 참여적, 보호적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유니세프는 친화도시의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변화의 효율적 단위로서,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6]. 따라서 아동의 유익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친화환경 조성은 국가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 역할로 간주해야 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구현하고 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를 인증하고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고, 이후 중소도시 모형으로 완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

결국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행복을 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행복감은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환경이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한 도시발달과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7].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바탕으로 도시의 발달을 도모하여 결국에는 아동이 살기 행복한 도시를 구성해 가는 것이다.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학대와 연관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 8]. 또한 아동의 행복감에 관한 연구들은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아동권리적인 측면에서 탐색하기보다 개인의 심리 정서적 측면,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환경에 대한 요인들

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7, 9, 10, 11].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는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유대관계, 안전, 학교생활과 같은 아동을 둘러싼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된 아동친화적인 도시 연구가 있으며[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13, 14]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인식조사를 토대로 아동친화도시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기에 의미가 있고, 아동권리와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따른 다른 개입과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아동의 행복감은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학업시간이 늘어나고 놀이와 여가 시간이 감소하면서 인식이 낮아지며 행복감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다른 아동권리요구와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15]. 또한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시기에 따라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16, 10]. 한국 아동청소년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행복감의 차이가 있는가?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둘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급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행복한 도시를 구축할 때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친화도시의 목적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동권리가 보장된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권리와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단일차원의 아동권리측면을 측정하였기 때문에[15]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을 둔 아동친화도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의 확대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5년 W지역 아동청소년실태조사 자료이다. 이 자료는 W지역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편의모집방법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완성한 후 30명의 아동을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적절성 그리고 이해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사와 함께 설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000부 중 수거 후 설문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97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자료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행복감을 측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인 요인과 아동친화도시관련 아동권리요인들로 놀이와 여가환경, 시민권과 참여, 안전과 보호,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을 측정하였다.

####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행복감은 한국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15]. 행복감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감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2.2.2 독립변수

아동친화도시 관련 요인은 유니세프가 만든 척도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번역한 척도를 지역적 특색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8].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 분석유형으로 아동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근거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놀이와 여가환경(6문항), 시민권과 참여(6문항), 안전과 보호(9문항), 건강

과 사회서비스(5문항), 교육환경(21문항), 가정환경(5문항)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가 높아질수록 아동권리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권리의 신뢰도는 놀이와 여가환경 .72, 시민권과 참여 .71, 안전과 보호 .84, 건강과 사회서비스 .73, 교육환경 .89, 가정환경 .78로 나타났다.

### 2.2.3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가족형태,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가족형태는 양친가정을 0으로 양친의 가정은 1로 표기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매우 못산다(1점)'에서 '매우 잘산다(5점)'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수준이 좋음을 의미한다.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을 실시하였고,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티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아동권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은 전체적으로 남학생(490명, 50.3%)과 여학생(485명, 49.7%)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표집되었다. 성별과 학교급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양친가정이 839명(86.1%)로 양친의 가정 136명(13.9%)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정형편은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07명(6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90명(9.2%)는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정형편은 전체적으로 평균

3.29(SD=.72)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을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평균 3.41(SD=.80)으로 중학생 평균 3.15(SD=.5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5.608, p<.001$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N(%)	X <sup>2</sup> (t)
sex	male	267(50.2)	223(50.3)	490(50.3)	.002
	female	265(49.8)	220(49.7)	485(49.7)	
	total(%)	532(54.6)	443(45.4)	975(100.0)	
family form	prenatal parents	467(87.8)	372(84.0)	839(86.1)	2.922
	step parents	65(12.2)	71(16.0)	136(13.9)	
	total	532(54.6)	443(45.4)	975(100.0)	
economic Level	very bad	15(2.8)	7(1.6)	22(2.3)	5.608***
	bad	14(2.6)	21(4.7)	35(3.6)	
	average	287(53.9)	320(72.2)	607(62.3)	
	good	169(31.8)	87(19.6)	256(26.3)	
	very good	47(8.8)	8(1.8)	55(5.6)	
	total	M=3.41 (SD=.80)	M=3.15 (SD=.59)	M=3.29 (SD=.72)	

### 3.2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수간 평균비교

학교급에 따른 주요 변수간 평균비교를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행복감 수준에 대해서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t=24.589, p<.001$ ), 초등학생 평균이 3.31(SD=.56)으로 중학생 평균 2.53(SD=.36)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가정형편,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환경, 교육환경, 시민권과 참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생존권 중 건강과 사회서비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tatistical analysis School stage

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t
	mean(sd)	mean(sd)	
happiness	3.31(.56)	2.53(.36)	24.589***
health and social services	2.26(.51)	2.58(.48)	1.723
housing	3.71(.40)	3.59(.47)	4.138***
safety and protection	3.29(.36)	3.16(.38)	5.506***
play and leisure	2.95(.50)	2.76(.48)	6.024***
educational resources	3.33(.40)	3.05(.40)	10.967***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2.46(.54)	2.31(.50)	4.397***

\*\*\*p<.001

### 3.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리요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권리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급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투입된 각 요인의 영향력 변화정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와 공차한계 그리고 분산팽창요인의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계의 최대치는 .649이었고 공차한계는 모두 .10보다 높았으며 분산팽창요인도 10에 근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와 함께 아동권리 요인으로써 6가지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가족사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중에서는 생존권 중 건강과 사회서비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졌다( $\beta=.062$ ,  $p<.05$ ). 또한 교육환경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84$ ,  $p<.001$ ).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복감에 있어서 생존권과 발달권이 일차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체 아동의 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64.000$ ,  $p<.001$ ) 모델의 설명력은 39.9%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Child right on Happiness

item	B	$\beta$	t	
sex(0=male, 1=female)	-.021	-.017	-.667	
family form (0=prenatal parents, 1=step parents)	-.060	-.034	-1.316	
economic level	.073	.086	3.299**	
survival of rights	health and social services	.077	.062	2.174*
	housing	.060	.043	1.362
protection of rights	safety and protection	.042	.026	.680
development of rights	play and leisure	-.016	-.013	-.414
	educational resources	.266	.184	4.974***
participation of rights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014	.012	.398
constant	3.594		15.017***	
R <sup>2</sup>		.399		
adjusted R <sup>2</sup>		.393		
F		64.000***		

\*p<.05, \*\*p<.01, \*\*\*p<.00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교육환경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족사항에서 양친부모가 있는 가정일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리 요인을 살펴본 결과, 건강과 사회서비스가 좋을수록,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영향력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존권 중 초등학생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가정환경에 따라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가 행복감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권리 영역 중 권리확대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지원서비스가 강조되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확대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한 보호권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item	elementary student		middle student	
	$\beta$	t	$\beta$	t
sex(0=m, 1=f)	-.060	-1.566	-.011	-.219
family form (0=prenatal parents, 1=step parents)	-.124	-3.200**	.035	.717
economic level	.130	3.344**	-.008	-.172
health and social services	.027	.618	.182	3.347**
housing	.115	2.481*	.120	1.930
safety and protection	.194	3.579***	-.168	-2.193*
play and leisure	-.011	-.237	-.045	-.779
educational resources	.187	3.537***	.075	1.098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025	.563	.009	.155
constant		1.894*		12.024***
R <sup>2</sup>	.245		.043	
adjusted R <sup>2</sup>	.232		.023	
F	18.802***		2.137*	

\*p<.05, \*\*p<.01, \*\*\*p<.001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시구축을 위한 아동권리와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권리의 확대를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제안하는 것이다. W지역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가정환경,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환경, 교육환경, 시민권과 참여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저학년 때부터 아동권리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성장 발달하는 전 과정 속에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학생 시기는 아동권리 프로그램을 강화함과 동시에 권리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관련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권리는 건강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행복감에 있어서 생존권과 발달권이 일차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있어서 아동의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교육환경 개

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아동권리의 영향력은 학교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정환경과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 중학생은 건강과 사회서비스,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권리확대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가족지원서비스가 강조되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서비스 확대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또한 보호권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안전과 보호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의 목적은 아동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감에 있다.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설계는 한 분야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건, 복지, 교육, 안전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융복합적 개입과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표본의 대표성이다. 본 연구는 W지역의 아동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표본의 대표성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동권리를 중심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REFERENCES

- [1] E. J. Lee, "Roles of Childcare Teachers toward Child Abuse Prev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81-91, 2016.
- [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5 Youth White Paper." 2016.
- [3] J. S. Hwang, J. Y. Lim, S. Y. "Exploratory Study on Child Abuse Reduction Plan through the Big Data Convergenc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98-105, 2016.
- [4] The Korean Committee for UNICEF Home page, <http://childfriendlycities.kr>, Dezember 8. 2016.
- [5] W. S. Kim, G. H. Jeong, M. K. Hong. "Survey of Wanjugun Children and Youth." 2015.
- [6] UNICEF. "Cities with Children: Child Friendly

- Cities in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Florence. 2005.
- [7] S. K. Moon, M. Y. Lee.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vol 6. No. 3, pp. 19-33, 2008.
- [8] Y. I. Jang. “Balancing Children’s Rights with Parental Rights in the Child Protection Practi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17. No. 4, pp. 541-570, 2013.
- [9] S. Y. Kim, G. P. Cho. “The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2, pp. 259-279, 2016.
- [10] E. J. Jo. “The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orum for Youth Culture. vol 45, pp. 113-136, 2016.
- [11] C. O. Jang. “A Study on Convergence Family Function and parameter validation fusion of youth protection fact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21-126, 2015.
- [12] A. H. Hong, J. Y. Lee.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2. No. 2, pp. 53-70, 2011.
- [13] H. S. Oh, S. K. Kim, Y. M. Jeon. “A Study of Youth Happiness Community’s Index and Construction Project III: The Pilot Project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Youth Happiness Communit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5.
- [14] S. O. Shin, J. Park. “Converged Association Between Suicidal ideation and Neighborhood Environment Among Som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71-277, 2015.
- [15] O. K. Hwang, Y. M. Han, J. W. Kim, H. H. Yang. “The 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Children on the Right of Play and Feeling of Happiness.”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19. No 4, pp. 755-774, 2015.
- [16] M. H. Lim, Y. S. Park. “A Study of Happi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12, vol 12, pp. 159-179, 2006.
- [17] B. Y. Lee. “Survey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p. 1-487. 2009.
- [18] UNICEF.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Tools.” Innocenti Research Center. pp. 1-69, 2011.

김 웅 수(Kim, Woong-Soo)



- 200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7년 7월 : 브레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 E-Mail : holyws@hanil.ac.kr